

기사 인쇄하기 인쇄하기 닫기

## 포스텍, 수술후 피부염증 막는 방지제 개발

2013-05-06 16:05 포항CBS 박정노기자



포스텍 한세광 교수

수술 후 나타나는 피부의 유착현상을 막는 '메디커튼'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돼 주목을 받고 있다.

포스텍은 6일 신소재공학과 한세광 교수팀이 신봉제약과 공동으로 생체고분자 히알루론산과 하이드록시에틸스타치를 이용한 신개념 유착방지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메디커튼은 국내 6개 대형병원의 자궁경을 통한 수술 환자 213명과 3개 병원의 복강경 수술환자 91명에 대한 임상시험을 거쳐 안전성과 유착방지 효능이 확인돼 최근 국내 의료시장에 출시됐다.

또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KFDA)의 승인을 받아 유럽 등 세계 의료시장 진출 길이 열릴 전망이다.

한 교수는 "이번 연구는 포스텍과 신봉제약의 산학 연구를 통한 첫 사업화 사례"라며 "앞으로 다양한 나노의약 제품을 상업화해 바이오·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이와 함께 히알루론산 유도체를 이용한 성형수술용 필러, 관절윤활제, 간질환 맞춤형 단백질 약물 전달시스템의 개발과 상용화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한 교수팀은 최근 3년간 히알루론산 유도체 및 다양한 생체재료를 이용한 나노의약 개발 논문 33편을 발표하는 등 나노의약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jnpark@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 닫기